

프로시대 초일류 기술에 도전하는 삼화기연주식회사를 찾아서...



▲ 삼화기연(주) 김인석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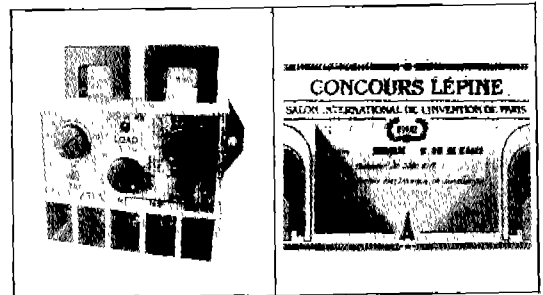
1980년 「기술선진화, 경영합리화, 이익의 균등화」라는 경영이념으로 자본금1억5천만원을 가지고 전기기술자1명 여직원1명과 함께 3명이 사업을 시작, 불철주야 노력끝에 3년만에 파전류 계전기를 개발한 삼화기연과 김인석사장. 13년이 지난 오늘 종업원 110명, 연간 매출액 40억원을 넘어서는 기적을 만들었고 최근에는 그동안 대기업들이 개발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고효율 전동기를 개발하여 생산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중소기업의 특성상 대개 적은 자본을 바탕으로한 가족형태의 가내공업에서 출발, 피와 땀을 밀거름으로 성장하듯이 삼화기연 역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김사장의 집념과 하루라도 세롭지 않으면 퇴보한다(不日新必日退)는 일념으로 기술개발을 통한 기업을 경영해왔다. 不日新必日退는 김사장의 좌우명이기도 하다.

창업주의 투철한 장인정신과 불굴의 의지로 시작한 삼화기연은 '86년 우수특허 관리업체 선정을 시

작으로 제17회 제네바 국제 발명전시회와 제6회 프츠버그 국제발명신제품 전시회에서 은상, '92년 프랑스 국제 발명전시회에서 금상을 획득함으로써 세계속의 전기용품 메이커로 급성장해왔다.

기술개발은 필요에 의해 나오기 때문에 현장경험이 없는 곳에서는 필요를 몰라 수용창출이 안된다는 논리에 따라 동사는 1988년 자체 연구소를 개설, 16명의 연구원을 두어 생산현장과 연계하여 실용성 있는 제품개발에 박차를 가했다. 이 연구소는 중소기업으로서는 보기드물게 과학기술처에 등록되어 매년 기업이윤의 10%를 기술개발에 재투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로 전자식파전류 계전기(EOCR), 전자식 한류기, 전자식 전자 릴레이, 모터 파부하 차단기 등 신상품을 생산하여 국내수요를 크게 신장시켜 국내에 1백50만개를 공급하고 시장 점유율도 20% 차지했다. 또한 영국, 호주, 파키스탄, 독일 등에 수출하고 있고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을 겨냥 '91년 3월 LA에 지사를 개설하는 등 세계시장 개척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 전자식 파전류 계전기(EOCR-SS형)로 '92 파리 국제발명품 전시회 금상수상



▲ 생산조립라인을 둘러보고 있는 김인석 사장

지난해 12월28일 중국 최대의 안산제철소에서 세계 고위기술자 80여명이 모인 가운데 산업설비의 전기기에 대해 열린 기술세미나가 열렸다. 여기에 초청을 받은 김사장은 강연을 통해 뜻밖에 참석자들을 아연 긴장시켰고 안산제철소의 가장 큰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발견한듯 큰 성과를 거둔 나머지 세미나 직후 강연을 통해 소개한 전자식 과전류 계전기 1만개를 즉석에서 주문받았다. 중국해군에서 9천개와 기업들이 1만개를 수주하여 호평을 받고 있었으나 이날의 세미나 즉석판매는 상업효과도 컸지만 한

국 전기기계 기술자의 권위를 신장시켜 국위선양에도 큰 일조를 한 셈이 됐다. 아마도 그 사람들은 전기기계류에 대한 이론과 기술을 모두 갖춘 유명한 발명가임을 몰랐던 모양이다.

삼화기연 김사장을 아는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움직이는 하이테크”라고 한다. 매일 이른새벽 발명구상과 작업을 하는 그를 두고 오죽하면 특허청에서는 “아파트 발명가”라고 칭할까.

개인으로서 그의 특원건수가 누구보다 많은데다 밤샘을 해가며 특허출원을 위한 명세 도면작성 등을 모두 직접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김사장이 기술을 개발하여 특원했거나 등록된 산업재산권만 해도 국내 1백1건과 해외 70건이나 된다.

김사장은 이 많은 발명품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그래도 전자식과전류 계전기(EOCR)라고 했다.

국내에서 사용되는 열동형계전기는 오동작이 심해 전력소모가 많고 모터와 판넬이 분리된 경우 외기온도 영향을 받아 40℃ 이상에서 사용이 제한되는 반면 EOCR는 전동기와 변압기에 과전류가 흐를때 이를 전자식으로 차단되고 가동시 동작시간 지연과 운전과부하 작동시간이 분리되고 쇼크릴레이 기능까지 있어 모터가 안전하며 릴레이 LED 램프와 전류조정 노부를 이용하여 실부하 전류를 확인할 수도 있어 별도의 전류가 필요없는 전자방식형 계전기로써 작업효율도 높이고 에너지 절감 (때시간 6W의 전력 절감효과) 기능을 갖춘 우수한 제품임을 자신했다.

작년여름 본 협회 회원이자 전기사용합리화 위원인 김사장을 업무협조차 처음 만났을 때 “전기기사를 위한 일이라면 무조건 협조하겠다”고 한 일성을 아직도 기억한다.

협회나 회원들을 위한 많은 성원에 감사드리며 삼화기연 전 종업원들의 행복과 함께 사업이 날로 번창하기를 기원한다.

취재/정리 교육홍보실장이재윤

원고가 넘치는 관계로 「전동기의 제어와 응용(2)」는 이번호에 쉽니다.